

‘도의국가(道義國家)’로서의 만주국과 건국대학

—사쿠다 소이치(作田莊一)·니시 신이치로(西晋一郎)·최남선의 논의를 중심으로—

강해수 _ 일본 국제기독교대학 아시아문화연구소

목 차

- I. ‘만주국’과 건국대학이라는 주제
- II. ‘만주국학’이라는 담론, 혹은 ‘만주국학의 성립’을 말하는 담론
- III. 만주건국의 ‘원리와 본의’
- IV. “도의국가는 왕도가 행해지는 국가”
- V. 최남선과 건국대학, 그리고 ‘도의’ 담론
- VI. 나가며

국문초록

본 연구는 만주 건국대학의 부총장이자 연구원의 원장이었던 사쿠다 소이치의, ‘도의국가’로서의 만주국 건국의 ‘존재와 당위성(사쿠다의 용어로 ‘원리’ 및 ‘본의’)을 논하는 일련의 글을 분석한 것이다. 이와 아울러, 건국대학의 명예교수였던 니시 신이치로(西晋一郎) 및 식민지조선에서의 ‘정책교수’로서 초빙된 최남선의 만주국 및 건국대학을 둘러싼 ‘도의’·‘도의국가’ 담론에 관해서도 고찰을 가하였다. 이를 통해 제국일본의 ‘제국의식’으로서의 ‘도의’ 및 ‘도의국가’ 담론이 만주국 건국이데올로기 창출의 일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으며, 또 어떠한 차질을 빚고 있는지에 관해 생각해보았다. 나아가 최남선의 ‘도의’·‘도의국가’론이 한국의 해방 공간 및 이승만의 제1공화국의 ‘건국이데올로기’, 나아가 박정희정권의 ‘도의를양운동’과 연속되는 담론공간을 반추해보았다.

주제어

만주국, 건국대학, 도의국가, 사쿠다 소이치, 니시 신이치로, 최남선

“우리들은 재건만주국이 멸망하고 재차 중국의 예속령(領)이 된 유일의 시대착오적 사실(事實)에 대해 깊은 의혹을 느낀다. 그것은 만주국 재건과 멸망이 대동아전 직전과 직후였다고 하는 시차(時差) 때문인가? 또는 만주국 재건의 실력자가 대동아전에서 패한 일본족(族)이었다고 말해야하는가? 혹은 만주국을 재차 동삼성화(東三省化)시킨 한(漢)민족 중국이 제천의 나라이든 공산국이든 지금도 여전히 평천하의 국시를 고지(固持)하고 있기 때문인가? 더욱이 그곳에는 미해결의 타이완 문제도 남아있다.”(사쿠다 소이치, 『만주 건국의 회고』, 1965)

“일본 국가는 본래 국가이며 방족(邦族)국가다. 또한 주체(主體)국가에 중점이 있다는 점에서 건국 시초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줄곧 **도덕국가의 성격**을 내포하고, 영원으로서 도덕국가에 중점을 두고 발전해왔다.”(사쿠다 소이치, 『도(道)의 언어』 5, 1966. 강조는 원문)

“**도의**라 함은 표면에 내세워 행하는, 동류로 생각되는 갖가지 행위를 일괄해서 그것들을 표면에서 인도하는 한층 높은 행위의 근거를 가리키고, 그것이 표면의 행위를 시정하는 기준으로 되는 바의 도(道)이다. 도리는 현실의 힘의 작용을 파악하는 **관상적(觀想的)**인 도(道)이며, 도의는 현실의 행위를 지령하는 **실천적인** 도(道)이다. 거기에서 ‘도’라고 할지라도 ‘도리’와 ‘도의’는 이를 구하는 기준을 달리하며...”(사쿠다 소이치 『도의 언어』 1, 1963. 강조는 원문)

“나는 자신과 타인 간의 복잡한 공동생활을 하나의 중심 관념으로 묶어서 생각해갈 때—그 중심은 **몸**으로서의 전체국가이다. 그 국가는 군국주의자나 ‘길드 소시얼리스트’ 등이 생각하고 있는 국가가 아니라, 신(神)의 나라에 통하는 국가이다—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심경의 넓이를 느끼는, 생명의 영원함을 깨닫는다. 이러한 관념은 외국의 철학이나 종교 사상보다도 우리들 조상이 남기신 고전 안에 매우 선명하게 계시되고 있다.”(사쿠다 소이치 『국가론』, 1940, 야마구치(山口)고등상업학교 학우회 편, 『학우회보』 70[1924. 2]에 게재된 것의 재록)

I . ‘만주국’¹⁾과 건국대학이라는 주제

교토제국대학 경제학부 교수로서 건국대학 창설준비위원²⁾을 거쳐 1938년에 건국대학 명예교수³⁾로, 1939년 1월부터는 건국대학의 실질적 책임자인 부총장 겸 연구원장을 역임하는 사쿠다 소이치(作田莊一, 1878~1973)는 만년에 출간한 책에서 “만주국의 건국대학의 출발에 즈음하여 창립위원 네 명이 일치된 의견으로써 신흥국가에 적합한 국립대학의 창건에 응하였다. 그러한 도덕 본위의 교학은 만주의 사람들에게 연고 깊은 아마노미치(天の道)에 부합했고, 또 도의국가를 표방하는 신흥국가에 상응했다”⁴⁾라고 말한 바 있다. 사쿠다가 여기서 회상하는 것처럼 건국대학은

1) 이하 따옴표 없이 표기.

2) 이 시기 사쿠다는 “건국대학은 건국의 원리를 명확히 하여 만주국 국운발전의 사상적 원동력으로 되도록, 그것을 공동연구라는 방법으로 달성한다. 교사와 학생이 일단(一團)이 되어 그 정신을 교사에서 생도로 전한다”(作田莊一, 「滿州国建国大学創立の精神と組織」, 文部省調査局 編, 『文部時報』第604号, 東京: 帝国地方行政学会, 1937.12, 26쪽. 이는 9월 22일의 “문부성 교육위원회 회합 때의 사쿠다 교수의 강연 속기”임)라고 말한 바 있다.

3) 「建国大学」, 『滿州国官吏録: 薦任官以上』, 新京: 國務院總務庁人事処, 1938(康德5).7.15, 30쪽.

‘도의국가’로서의 만주국, 즉 “도의세계 건설의 선각적 지도자로서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⁵⁾ 1938년 5월 2일에 개학식을 거행했다. “만주국 역사의 원점은 건국대학이”⁶⁾라는 발언도 있으나, 이는 ‘도의국가’로서의 만주국의 ‘건국이념’을 창출하기 위한 주요 목적의 하나로 건국대학이, 나아가 1938년 9월 1일의 ‘건국대학 연구원령(令)’이 공포된 사정을 잘 표현하고 있다. 1942년 6월의 중국인 학생 대량 검거에 책임을 지고 사직할 때까지, 사쿠다는 연구원장으로서⁷⁾ 그 같은 ‘도의국가’로서의 만주국 건국의 ‘존재와 당위성(사쿠다의 용어로 ‘원리’ 및 ‘본의’)을 논하는 일련의 글을 발표한다. 본고는 이에 대한 고찰과 함께, 니시 신이치로(西晋一郎) 및 식민지조선에서의 ‘정책교수’로서 초빙된 최남선(1890~1957)의 만주국 및 건국대학을 둘러싼 ‘도의’·‘도의국가’ 담론에 관해서도 논한다. 이를 통해 제국일본의 ‘제국의식’으로서의 ‘도의’ 및 ‘도의국가’ 담론⁸⁾이 만주국 건국이데올로기 창출의 일단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으며, 또 어떠한 차질을 빚고 있는지에 관해 생각해본다. 나아가 최남선의 ‘도의’·‘도의

4) 作田莊一, 『道の言葉』 第6巻, 京都: 『道の言葉』 刊行会, 1967, 228쪽. 강조는 원문. 건국대학 창설준비위원은 사쿠다 외에 니시 신이치로(西晋一郎, 1873~1943, 이후 건국대학 명예교수를 역임), 가케이 가케히코(筧克彦, 1872~1961, 도쿄제국대학 법학부 헌법학 교수로서 신도사상가), 히라이즈미 기요시(平泉澄, 1895~1984, 도쿄제국대학 문학부 국사학교수로서 황국사관의 역사가)이다.

5) 「建国大学令」, 建国大学 編, 『建国大学要覧』, 新京: 建国大学, 1941(康德8), 9쪽.

6) 山田昌治, 『興亡の嵐-満州建国大学崩壊の手記』, 東京: かんき出版, 1980, 4쪽.

7) 사쿠다는 일본으로 귀환한 후에도 명예교수로서 매년 여름 강의를 위해 건국대학을 방문하였다. 사쿠다가 사임한 후 제2대 부총장으로 육군중장 출신의 수에타카 가메조(尾高亀藏, 1884~1953)가 부임한다. 미야자와 에리코에 의하면 “많은 건국대학의 교직원이나 학생들은 ‘사쿠다 부총장이 사임함으로써 건국대학은 끝났다고 생각’(宮沢恵理子, 『建国大学と民族協和』, 東京: 風間書房, 1997, 160쪽)했다고 한다.

8) 필자 조사로는 근대 일본에서의 ‘도의국가’라는 용어의 출현은 오오카와 슈메이(大川周明, 1886~1957)의 『도의국가의 원리』(사회교육연구소, 1925)에 처음 보인다. 여기에 관해서는, 강해수, 「제국일본의 ‘도의(道義)국가’론과 ‘공공성-와쓰지 테쓰로(和辻哲郎)와 오다카 도모오(尾高朝雄)를 중심으로」, 『오늘의 동양사상』 제23호(2012)를 참조바람.

국가론이 한국의 해방 공간 및 이승만의 제1공화국의 '건국이데올로기', 그리고 박정희정권의 '도의양양운동'과 연속되는 담론공간을 반추해본다.

지금까지 만주국과 건국대학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도의' 및 '도의국가'론의 관점에서 양자의 연구가 가지는 의미를 본격적으로 논한 글은 없다. 만주국연구를 한 차원 끌어올린 야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 1951~)는 “과연 만주국 출현은 새로운 정치학설을 창안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특이한 것이었고, 그 정치형태는 세계에 대해서 가장 신선하고 도의적인 모범(모델)을 제공했는가? (중략) 어쨌든 건국 시기에 여러 가지로 표명된 이러한 담론으로써, 오늘날 여전히 만주국 건설이 도의국가를 지향하는 이상의 추구였다고 주장되고 있다”⁹⁾라고 언급한다. 하지만 이 문장에는 '도의국가'가 일찍이 제국일본의 자기동일시 혹은 '제국의식'의 담론으로서 발화되었고, 그것이 만주국의 건국이념에 투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즉 '도의' 및 '도의국가'라는 용어가 만주국(과 건국대학의 학술)의 성격을 논하는데 있어 불가결한 주어로 되고 있지는 않다. 이는 야마무로가, 조선인 건국대학의 학생이 니시모토 소스케(西本宗助, 1909~1990, 교육학) 조교수와의 만남에서 행한 “선생님, 조선이 일본의 예속에서 해방되어 독립해서 비로소 한일(韓日)은 처음으로 진실하게 제휴할 수 있습니다”라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건국정신의 신수(神髓)를 체득하고, 학문의 온오(蘊奧)를 연구하며 몸으로써 이것을 실천해서 도의세계건설의 선각적 지도자로서의 인재를 양성한다’(건국대학령, 제1호)라는 건국의 정신에 비취보면, 조선민족 학생의 말이야말로 민족협화라는 건국정신의 신수를 체득하고, 몸으로써 실천한 것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¹⁰⁾라고 언급한 문장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9) 山室信一, 『キメラ—満州国の肖像』(増補版), 東京: 中央公論新社, 2004(초판은 1993), 126쪽.

10) 위의 책, 303-304쪽.

Ⅱ. ‘만주국학’이라는 담론, 혹은 ‘만주국학의 성립’을 말하는 담론

사쿠다는 현재 일본에서는 잊힌 인물이다.¹¹⁾ 그러나 건국대학 재직 시기의 사쿠다는 부총장 겸 연구원 원장으로서 건국대학이 나아가야 할 학술의 방향을, 연구원에서의 발표 등을 통해 주도적으로 제시하고자 노력했던 인물이었다. 사쿠다는 그의 일련의 작업을 통해 제국일본에 의한, 만주국 수립을 둘러싼 정당성의 논리를 부여하려 했다. 예를 들면 1939년 2월 7일과 3월 20일에 열린 연구원 전체연구회 제1회 및 제2회 예회에서 사쿠다는 「현대의 학문과 만주국학의 연구법」을 발표한다. 사쿠다는 여기서 “건국대학에서 연구하는 주요 학문인 만주국학은 건국정신을 몸에 지님으로써 비로소 연구될 수 있음이 명백한 점에서 현대의 학문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건국정신으로써 연구하는 학문은 만주국에 있어서는 만주국학이다”¹²⁾라고 주장한다. 여기서 말하는 만주국의 ‘건국정신’이란, “첫째로는 만주국은 왕도정치(王道政治)의 나라이다. 둘째로는 민족협화의 나라이다. 셋째로는 도의세계(道義世界)를 건설하는 나라이다. 넷째로는 일만(日滿)이 불가분한 관계의 나라이다. 일만이 일덕일심(一德一心)의 관계를 가진 나라이다”¹³⁾라는 것이다. 이에 관해 사쿠다는,

상술의 건국정신만으로는 국학의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즉 학문 연구의 입장이 되는 바의 정신은 실제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현실의 존재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지금 열거

11) 일전에 작고한 사회학자 사쿠다 게이치(作田啓一, 1922~2016)가 그의 아들이다.

12) 作田莊一, 『現代の學問と滿州國學の研究法』, 新京: 建國大學研究院, 1940(康德7). 11(全體研究會報告第1・2號), 21쪽.

13) 위의 책, 24쪽.

한 네 가지는 대개 어떤 실재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해야함을 열거한 것이다. 왕도정치는 이미 오랫동안 행해져왔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주국은 왕도정치를 행해야하는 나라임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민족협화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아니라, 민족협화를 기초로 해야함을 말하는 것이다. 하물며 도의세계 건설이라 하는 것은 가장 규범적인 정신이다.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나라임을 말할 뿐이다. 다만 일만 불가분의 관계만은 규범적이거나 어느 정도 현실이 되고 있지만, 이도 또한 만주국 건국정신의 본질을 나타내는 곳에까지는 실현되고 있지 않다.¹⁴⁾

라고 논한다. 즉 ‘만주국학 연구’가 지향해야 하는 바는 ‘건국정신’의 “실제적인 것” 혹은 “현실의 존재” 차원의 범주에 있다. 사쿠다는 ‘건국정신’으로서의 ‘왕도정치’와 ‘민족협화’, 나아가 “가장 규범적인 정신”으로서의 “도의세계의 건설”의 현실적 괴리를 지적하는 한편, 이러한 괴리를 일소하는 데에 “만주국학 연구”의 자세가 있음을 지적한다. 이 같은 “학문연구의 입장”을 지니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국가정신, 국심(國心)”¹⁵⁾이다. 사쿠다는 “이 건국정신, 넓게는 국가정신을 음미”하기 위한 ‘내용’으로서 “건국원리 혹은 국가원리”와 “건국본의(本義) 혹은 국가본의”¹⁶⁾의 두 가지를 든다.

건국원리라고 함은 우선 나라를 창건하는 바의 원리이다. 원리라 함은 근세 학문에서 말하는 바의 추상적 보편의 이론이 아니다. 일단의 많은 사실에 대해 일정한 움직임을 야기하는 힘이 조리(條理) 혹은 이유이고, 허다한 조리를 통솔해가는 근원적인 힘이 원리이다. 따라서 원리나 조리 또는 이유도 구체적인 힘의 작용이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힘의 작용이다. (중략) 만주건국의 원리는 이 구체적인 만주국

14) 위의 책, 24쪽.

15) 위의 책, 24쪽.

16) 위의 책, 24-25쪽.

으로 말미암아 성립하는 데 이른 바의 힘, 혹은 힘이 작용하는 방향을 의미한다. 그것이 원리인 까닭은 고려된 이유에 의해서가 아니라 만주국을 실제로 만들어간 바의 현실의 힘이기 때문이다. 나라를 창건하는 원리다. 그리고 다음으로 원리에는 또 하나의 것이 존재한다. 그것은 나라의 창건에 이어 스스로에 성립된 나라를 유지하는 바의 원리다. (중략) 나라를 만들어낸 바의 원리와 그 나라를 유지시켜가는 바의 원리의 두 가지는 소위 한 원리의 두 단계이고, 그것이 건국원리임에 다름 아니다. 그리고 조리와 병행하는 것은 도의다. 원리와 병행하는 것은 본의다. 조리가 그러한 바의 힘인 것과 달리는 도의는 그리 하여야 하는 힘이다. 도의의 기본적인 것, 다수의 도의를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것을 본의라고 한다. (중략) 나는 이제까지 원리와 병행하여 주의라는 말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주의라는 말이 너무 지나치게 널리 사용되어, 가볍게 다루어져왔으므로 본의라는 말을 사용한다. 여기에서는 건국원리 및 건국본의를 사용한다. 이 건국본의도 나라를 창건하는 바의 본의와 나라를 유지시켜가는 본의의 두 단계가 있다. 전자는 만주국 창건을 이끄는 바의 규범으로서의 힘이다. 후자는 만주국이 성립된 때에 만주국의 유지를 위해 뜻을 세워가는 바의 도의의 힘이다. 달리 말하면 만주국이 의식적으로 일정한 목표로 하여 움직여가는 때에 기본적 규범으로서 국운을 이끄는 바의 힘이 건국의 본의가 된다.¹⁷⁾

그 지점에서 원리와 본의의 둘이 하나가 되어 건국정신을 형성하고 있다. 건국정신은 혹은 원리를 가리키고 혹은 본의를 가리키지만, 오히려 하나의 정신이 원리 혹은 본의라 볼 수 있다. 일본의 건국정신을 보면 일본의 경우에는 원리, 즉 본의라 말해도 무방한 측면이 있다. 그것은 역사가 있어 원리에 기반하여 본의가 생기고, 본의가 현실화되어 원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리이기도 하지만 본의이기도

17) 위의 책, 25-26쪽.

하다. (중략) 원리는 그대로 본의이기도 하여, 이 둘이 분리될 수 없는 것이 일본의 건국정신이다.¹⁸⁾

사쿠다는 이처럼 (주체성 및) 원리와 본의에 중점을 두는 것을 현대 학문의 특징이라 전제하면서, 만주국 건국정신을 둘러싼 만주국 건국의 「원리와 본의」의 구별 및 그 결합에 관해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사쿠다의 「현대의 학문과 만주국학의 연구법」에서의 논의는 후술하는 「만주국의 원리」 및 「만주국의 본의」의 작업으로 구체화해간다.

한편 「현대의 학문」과 그 일환으로서의 ‘만주국학’ 형성에 대한 사쿠다의 강조는, 1941년 5월의 『연구기보(期報)』에 발표한 「발간의 사(辭)－현대의 국학에 관하여」에 잘 나타나 있다. 즉 “건국대학의 명칭이 이미 근세류의 대학이 아님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같이, 본 대학의 교육이 건국정신을 체득해서 연구하고 실천하는 선각적 지도자다운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음으로, 대학에서의 연구도 주력을 건국정신 혹은 국가정신의 진흥 및 보급에 집주(集注)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시에 또 그 정신을 주체로 하는 만주국연구, 즉 만주국학의 수립이야말로 실로 본 대학 연구원의 중책이 된다”¹⁹⁾라고 말한다. 또한 “만주국학은 고전훈고의 학이 아니라, 첫째로 우리나라의 국심으로써 우리나라의 생활을 사실(事實)·당위·조리·도의에 걸쳐 연구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학 또는 분과 학문이라는 의미의 과학으로서의 방국(邦國)과학(혹은 국민과학)은 현대 학문의 주류에 선다”²⁰⁾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사쿠다는 “현대 학문은 道를 추구하고 밝히는 데 있다. (중략) 직접적으로 현실 경지와 접촉하는 근세 이학(理學)을 통해 성립하는 바의 현대 명도(明道)의 학은, 그 권위를 우리나라

18) 위의 책, 26쪽.

19) 「『發刊の辭－現代の學問に就て』, 『建國大學研究期報』第1輯, 新京: 滿州帝國協和會 建國大學分會出版部, 1941(康徳8).5(원고작성은 1941. 3. 16), 5쪽.

20) 위의 글, 6쪽.

라의 전체의지 혹은 국가정신에서 구한다”²¹⁾고 논한다. 사쿠다는 이 「발간의 사」 말미에서 “현대 학문은 그 주류를 방국(邦國)생활 연구에서 찾는다. 만주국립연구원의 주된 연구과제는 만주국학이다. 우리 국심으로써 우리나라 생활을 연구하는 것은 칙서에서 말씀하신 성의정심(誠意正心)의 학을 본으로 하는 까닭임에 틀림없다. (중략) 따라서 우리 국심에 의해 연구하는 국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칙서에서 표명하신 바대로, 우리 건국의 정신을 따라서 그 일념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²²⁾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만주국학’ 담론은 연구원이 편찬한 ‘신질서건설총서’의 하나로 사쿠다가 1942년 8월에 펴낸 『현대과학과 만주국학』²³⁾에서는 근세의 학문과 현대의 학문(및 근대과학의 특색), 그리고 ‘일본국학’과 ‘만주국학’을 구체적으로 비교, 서술하고 있다.²⁴⁾ 사쿠다는 여기서 “도의를 연구하는 것은 확실히 현대 학문의 극히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기술과학 위에는 반드시 도의과학의 수립을 요한다”²⁵⁾라고 전제하면서,

21) 위의 글, 8쪽. 사쿠다는 또 “창의가 사람의 도(道)라 할지라도, 나라의 생활의 도(道)라면 반드시 초개인적 전체의지의 창의로움을 요하는 것이 현대 학문의 일대 특색이다. 현대와 같은 변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사상(事象) 발생과 새로운 목적 추구가 속출하는 경우에는 아직 이(理)를 갖추지 않은 도(道)를 확정할 필요가 종종 일어난다”(위의 글, 11쪽)라고 말한다.

22) 위의 글, 13쪽.

23) 『現代科学と滿州国學』(新秩序建設叢書第7冊), 新京: 滿州帝國協和會建國大學分會出版部, 1942. 이 소책자는, 후술하는 사쿠다의 「만주국의 원리」 및 「만주국의 본의」 발표 사이에 쓰여 출간되었다. ‘신질서건설총서’ 제1책이 사쿠다가 저술한 『大東亞戰の意義』(建國大學研究院 新秩序建設叢書1冊, 新京: 建國大學研究院, 1942(康德9))이다.

24) 사쿠다는 이 소책자 첫 페이지에서, “나라들이 병렬하고 있는 세계생활 가운데 서서, 우리 국심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생활을 연구하는 학문이 **현대국학** 또는 **방국(邦國)과학**(혹은 **국민과학**)이라 불리운다”(위의 책, 1쪽. 강조는 원문)라고 말한다. 사쿠다는 1935년에 이미 『국민과학의 성립(國民科學の成立)』이란 책을 출간한 바 있다.

25) 위의 책, 59쪽. 강조는 원문.

“도의과학은 기술과학을 수반하면서 현대 명의(明義)의 학으로서의 면목을 발휘할 것이다. 실제로 정치도(政治道)를 명확히 하는 정치학, 경제도(經濟道)를 명확히 하는 경제학, 문교도(文教道)를 명확히 하는 문교학, 군전도(軍戰道)를 명확히 하는 군전론(軍戰論) 같은 것은 확실히 현 시대가 요구하는 학문이다”²⁶⁾라고 주장한다. 나아가 사쿠다는 “근세 과학에 집착하는 사람은 수많은 일본 국체는 일본국만에 존재하는 특수성이며 각국에 통용되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과학적 법칙이 되지 못하고, 따라서 학문적으로 존중되기 어렵다고 말한다”²⁷⁾라고 지적하면서 “현대 과학의 주된 특색은 연구 대상에 상응하는 연구주체를 확정하는 데 있다”²⁸⁾라고 논한다. 이어 사쿠다는 “국가의 입장에서 방국생활 또는 국민생활을 총체적으로 보는 연구 체계가 방국과학 또는 국민과학을 형성하는 점에 있어서, 전체주의를 채택한 독일·이탈리아의 학문에는 방국과학사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 과학에 대해서 가장 혜택을 입은 사정에 있는 것이 필국 이래 일관해서 전체국가를 지속해온 일본이다. 이와 동시에 일본의 학문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이지 않는 독자적 역사가 보인다”²⁹⁾라고 지적하면서, “현대의 학문로서 제일 먼저 출발한 것은 일본 국학, 즉 일본방국과학(국민과학)이다”³⁰⁾라고 주장한다.

26) 위의 책, 59-60쪽.

27) 위의 책, 72쪽. 이에 앞서 사쿠다는 “사람들 생활의 보편적 법칙이 최고도로 구현되고 있는 것이 **방국생활**이다. 그 법칙은 하나하나의 방국 또는 국민이 지니고 있는 것이고, 그곳에는 수십의 구체적인 보편적 법칙이 몰어진다. 여기에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론적으로도 방국과학이 성립하고, 일본방국과학·만주방국과학·독일방국과학 등이 병립한다. 일본의 국제원리는 일본방국과학에만 보이는 원리이며, 그것이 다른 나라들에는 보이지 않는 것은 조금도 과학성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다. 아니 오히려 각 나라 자체의 보편적 법칙을 추구하는 연구야말로 근세 과학이 몰랐던 신규의 현대 과학인 것이다”(위의 책, 72쪽. 강조는 원문)라고 주장한다.

28) 위의 책, 77-78쪽. 강조는 원문.

29) 위의 책, 83쪽.

30) 위의 책, 97쪽. 강조는 원문.

한편 ‘만주국학’과 관련하여 사쿠다는 “만주국학은 의식적으로 세계 안에 선 만주의 국심으로써 만주국의 생활을 연구하는 학문”³¹⁾이라고 정의하면서도, “일본국학은 성립이 곤란하지 않지만, 만주국학은 반드시 용이한 것만은 아니”³²⁾라고 논한다. 나아가 사쿠다는 다음과 같이 논한다.

만주국에서는 이제까지 **건국정신**이 주창되고 있지만, 그것은 건국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까닭이다. 나라를 세우는 정신은 이욕고 나라를 공고히 하는 마음이 되고 나라를 여는 마음이 되어 중국에는 타국에서도 널리 통하는 마음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정신**이다. 설령 그것이 지금까지는 유소(幼少)할지언정, 이 국심에 입각해 보고 생각하는 만주국연구가 만주국학으로서 성립한다. 건국대학 및 연구원령에는 건국정신을 체득하여 학문을 이룬다고 하는 것이 명기되어 있다. 교육의 경우에는 건국정신을 체득하여 국민을 교육한다고 말하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도 설령 만주국에 관한 연구라 할지라도 과학 연구를 건국정신으로써 대한다고 한다면, 종래 학문 연구법에서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대 학문은 전술한 바와 같이 연구주체를 명확히 하여 출발함이 제일차적이며, 만주국에 관한 연구주체는 만주국의 국가의지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에 국가정신의 체득이 결여될 수 없는 전제가 된다.³³⁾

사쿠다는 여기서 만주국의 ‘건국정신’이 ‘국가정신’으로 연결되기를 기대한다. 이 ‘국가정신’ 형성을 위한 기제로서 ‘만주국학’이 지닌 의미가 존재한다. 그 ‘만주국학’이란 것도 ‘국심’, 즉 ‘국가정신’에 의한 ‘만주국연구에 의해 성립’하는 과학으로서의 “현대 학문”적 담론이다. 재언하면, 이

31) 위의 책, 100쪽. 강조는 원문.

32) 위의 책, 101쪽.

33) 위의 책, 102-103쪽. 강조는 원문.

같은 ‘현대 학문’의 양식으로서 존재하는 ‘만주국학’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연구 주체”가 그 전제가 되며, 그 “연구 주체”는 바로 만주국 ‘국가의지(달리 표현하자면 ’주권³⁴⁾)’인 것이다. 사쿠다는 이 만주국의 ‘국가의지’와 관련하여,

만주국학 연구에 있어서는 우선 곧장 만주국가의지로 뛰어들 것을 요한다. 마음이 이곳에 있지 않으면 보아도 보이지 않는다. 연구자가 국심(國心)이 되어, 마음이 여기에 있을 때 비로소 만주국 상(相)이 보여진다. 그것이 연구의 출발점이다. 그 출발점이 국학의 일철의 인식 내용 및 판지(判智)내용을 규정한다. 국가의식 그 자체가 인식체계 내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내용은 연구주체가 연구대상에 관여해서 그 대상 내에서부터 추출하는 것이다. 주체인식이 인식내용을 결정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관념론이다.³⁵⁾

34) Prasenjit Duara, *Sovereignty and Authenticity: Manchukuo and the East Asian Modern*,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4.

35) 『現代科学と滿州國學』, 111쪽. 미야지와 에리코는 “사쿠다의 논리와 만주국의 실상을 비교할 때, 사쿠다가 싫어하는 ‘탁상의 추상공론’에 지나지 않았던 것은 왜인가? 그 이유는 대저 ‘만주국’을 일본과 같은 ‘독립국가’로 여긴 대전제에 잘못이 있기 때문이다. 사쿠다의 논리는 이 점에서 몇 번이고 모순에 빠진다. 인위적으로 창조된 국가이면서 이를 떠받치는 민중의 지지가 없었던 사실은 만주국 통치 실태를 숙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국대학 내의 학생 생활에서 쉽게 감지될 수 있는 사실이고 사쿠다의 논리에서도 고찰되고 있다. 여기서 ‘만주국’이 과연 참으로 독립국가인가 하는 의문이 쉽게 도출되어야 하지만, 사쿠다의 논리는 독립국가라는 전제에 얽매어 있었기 때문에 모순이 모순으로서 의식되지 않는다. 어디까지나 ‘국가의지’가 있다고 가정할 뿐이다. 만일 ‘만주국’에 국가의지가 없다면 당연히 독립국가로서의 ‘만주국’도 없다. 그러나 만주국의 실재를 의심하기는 어렵고, 또 실재하기 때문에 그 미래의 지도자다운 인재를 육성하는 건국대학도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만주국’에는 국가의지가 있을 것이고, 그것이 명확하지 않은 것(즉 국내의 전(全)민족으로부터 강한 지지를 얻고 있지 않다)은 만주국이 아직 건국한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이라, 사쿠다의 논리는 전개 방향이 역전되어 간다”(『建國大學と民族協和』, 146~147쪽)라고 지적하고 있다.

라고 논한다. 나아가 사쿠다는 ‘만주국가의지’에 의한 “만주국학 연구에 있어서는 소위 민족주의를 들고 나오는 것은 금물이다. 지나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에 있어서는 중국 위주로 관찰하는 것을 엄히 스스로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제 민족의 협화는 사이 좋게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협화는 만주방족(邦族) 결성 과정이며 그것이 건국 본의의 하나다. 더욱이 만주국에 있어서는 소위 민족주의는 국가를 파괴하는 부당한 태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또 국학 연구의 입장을 무시하는 것이 된다”³⁶⁾라고 강조하고 있다.

Ⅲ. 만주건국의 ‘원리와 본의’

1. “만주건국의 원리(=조리)”와 “경국(經國) 일본과 보경(保境) 만주의 합작”으로서의 만주국

사쿠다는 연구원 원장으로서 1942년 5월 연구원에서 출간한 『건국대학 연구기보』 3집에 「만주건국의 원리」라는 글을 발표한다. 사쿠다는 여기서,

36) 『現代科学と滿州国学』, 113쪽. 미야지와 에리코는 사쿠다의 ‘만주국학’ 연구에 관해 “건국대학 연구원에서는 건국정신=국가의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연구과제였고, 또 동시에 이 같은 건국정신으로써 주관적으로(사쿠다의 말로는 연구주체를 명확히 해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새로운 학문의 형성과 발전에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이 새로운 학문이 ‘만주국학’으로, 사쿠다는 연구원에서의 종합연구에 의해 ‘만주국학’을 대성시키려 시도했다. ‘만주국학’이란 학문대상을 만주국으로 규정하고 서양 학문의 수입·모방을 지양하며, 여러 가지 새로운 학문적 접근에 의해 만주국을 다각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었다. 그러나 학문연구의 새 방법 확립에 머물지 않고, ‘만주국의 국가의지’ 발양에 공헌하는 방법을 모색한다고 하는 과제도 안고 있었다. 이처럼 ‘만주국학’이란 ‘국가의지’의 존재에 대한 사쿠다의 학문적 신념에서 탄생하고, ‘만주국’이 독립국가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대전제 위에 발전되기 것이 요망된 학문이었다 말할 수 있다”(『建国大学と民族協和』, 147-148쪽)라고 설명하고 있다.

건국의 원리는 국가를 성립시키고 존속시키는 일통일관(一統一貫)의 힘의 작용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더욱이는 국가가 어떠한 기본적인 성격을 갖추고 생활 취향에 수반하여 나아가야하는가의 입국의 도의적 본령을 건국의 본의라 부른다. 이것이 실천을 이끄는 건국정신의 내용이 된다. 만주건국의 본의는 이것 또한 원리와 마찬가지로 만주국에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각국 공통의 본의에서 추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타국에 통용되는가 아닌가에 관해서는 물을 바가 아니다. 만주국의 본의는 이 국가건국의 의의이며, 이 국가의 성장·완성을 이끄는 바의 일통일관의 향도력(嚮導力)이다. 그것은 만주국의 조직 및 행장(行狀) 일절에 걸쳐서 존수(尊守)되어야 하는 보편적 명(命)이자, 또한 국민의 일절의 행위를 통해서 의거해야 할 바의 보편적 법률이 된다. 만주건국에 관해서 이 본의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신국가(新國家)가 오랜 역사의 전통 상 단절된 바가 있고, 어떠한 의의로 이 나라가 현대에 있어 출현하고 존립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중략) 의식적으로 창건된 나라인 이상은 의식적으로 나라에 생동하고 변영하는 목적으로써 활동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지향이 분명하지 않다면 나라를 견고히 만들어 오래 변영시키는 생명력이 약동하지 않는다. 만주건국의 원리와 본의란 첫째는 건국의 사실(事實)을 발생시키는 입국 골자가 되는 바의 위세력(威勢力)의 동향을 가리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건국의 의의나 실천의 도의적 지향을 가리킨다. 이 둘은 그 성질을 달리하면서 서로 하나에서 다른 하나를 이끌어내지만, 둘은 함께 포함되어 일치하고 있는 것도 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나라라면 건국의 원리가 동시에 본의이고, 본의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실천에 의해 원리로 될 수 있는 것도 있다. 37)

37) 「滿州建國の原理」, 『建國大學研究期報』第3輯(建國十周年慶祝記念号, 新京: 滿州帝國協和會建國大學分會出版部, 1942(康德9).5, 5-6쪽.

라고 논한다. 사쿠다는 “입국의 도의적 본령”으로서의 “건국의 본의”에 관해서는 본 논문 다음 장에서 고찰하는 자신의 다른 논고를 통해서 상론한다. 사쿠다는 상기 문장에 이어 만주국건국의 ‘발기력’ 및 ‘결정력’³⁸⁾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먼저 ‘발기력과 관련해 사쿠다는,

우리들은 건국 전의 정세를 돌아보며 건국의 발휘력이 ‘경국(經國) 일본’과 ‘보경(保境) 만주’의 두 의지력임을 본다. ‘경국 일본’이라함은 당시에 있어서의 일본정신인 간나가라(惟神)경국의 신념을 품은 사람들이 이심전심으로 결합한 행동체(行動體)를 가리킨다, ‘보경 만주’라함은 당시에 있어서 만주를 중국의 일부로서의 관계로부터 분리해서 만주주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보경안민(安民)의 지향을 품은 사람들이 이심전심으로 결합한 행동체를 가리킨다.³⁹⁾

라고 설명한다. 사쿠다는 이 “경국(經國) 일본’과 ‘보경(保境) 만주”라는 “두 의지력이 합체하여, 여기에서 건국의 결정력을 발생시키는 데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사쿠다는 “만주사변 및 만주건국” 당시 일본 내부에서의 “경국 일본’에 반대”하는 “여러 유파”를 “민정 일본”이라고 규정하면서,⁴⁰⁾

일본 국내에 있어서 ‘민정(民政) 일본’에 의해 억압된 ‘경국 일본’은 대륙에 있어서 자유로운 수완을 발휘했다. ‘경국 일본’은 결코 침략자

38) 사쿠다는 “발기력이 어느 단계에 달하여 건국의 결심이 정해졌을 때 결정력이 된다”(위의 글, 7쪽)라고 지적한다.

39) 위의 글, 8쪽.

40) 위의 글, 12쪽. 사쿠다가 이 “민정 일본”의 예로 드는 것이, 만주사변 당시의 민정당(民政黨)내각과 그 반대당이었던 정우회(政友會) 및 “계제 및 지식층”의 “자유주의나 평화주의”였다. 그리고 “광협(廣狹)의 여러 사회주의자 등”도 “개인지상주의의 민의를 기초로 하고 민정에 중점을 두며 대외적으로 패배주의를 취하는 부분에서, 오히려 ‘민정 일본’ 가운데서 악질에 속한다”(위의 글, 12쪽)라고 주장한다.

가 아니라 사방을 경영하는 경세자이다. 나라의 경영은 국경을 경계 짓는 일국의 경영에 그치지 않고 실로 천상의 신의를 지상에 개현(開顯)하는 ‘간나가라(惟神)경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국 정신이 만주사변을 통해서 일단 ‘보경 만주’와 접촉하면서 금세 만주 건국에의 진로를 잡은 것이다.⁴¹⁾

라고 말한다. 사쿠다는 이러한 “경국 일본’에 호응한 것은 ‘보경 만주’였다. 보경 안민을 취지로 하는 방향과 대립하는 것은 만주를 중국과 연결하는 방향이다. 이를 ‘연중(連中) 만주’라 부르겠다”⁴²⁾라고 거론하면서, “보경 만주’는 점차 대두해 왔다. 만주에 있어 최선의 방도는 보경 안민이고, 이 요망은 단지 만한몽족(滿漢蒙族)에 머물지 않고 장기 재주하는 일본내지족(內地族)·조선족 사이에서조차 존재하고 있었다”⁴³⁾라고 주장한다. 즉 사쿠다는, “경국 일본’이 ‘민정 일본’의 불찰에 분개하여 분진(奮進)한 것처럼, ‘보경 만주’는 ‘연중 만주’의 무모함에 질려 그 입각의 기반을 재확인했”⁴⁴⁾을뿐만 아니라 “일본의 방위 실력에 의해 보경안민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사변에 처하는 최선의 방도임을 만주의 식자가 각성하는 바가 되었다”⁴⁵⁾라고 말한다. 나아가 사쿠다는,

건국 당시 이미 지도적 지위에 선 사람들 사이에는 종래의 패도(霸道)를 배척하고 침략적 제국주의를 물리치며, 공산주의에 반격하고 삼민주의를 거부했다. 서민을 안거낙업(安居樂業)의 경지에 두고, 국가를 도의에 의해 건설하고 대의를 사해에 퍼려고 하는 실천적 사상이 힘차게 넘쳐흘렀다. 이 사상은 건국 당시 ‘경국 일본’과 ‘보경 만주’

41) 위의 글, 16쪽.

42) 위의 글, 16쪽.

43) 위의 글, 17쪽.

44) 위의 글, 17~18쪽.

45) 위의 글, 20쪽.

가 일치하는 점이었고, 그 일치하는 사상이 건국운동에 있어 하나의 큰 추진력이 되어 있었다. 건국 당시에는 일만(日滿)의 사상적 불가분에 대해 말하는 일은 없었지만, 실은 ‘경국 일본’은 ‘민정 일본’에 반대하고 ‘보경 만주’는 ‘연중 만주’에 반대해서 함께 신국가 건설을 향해 실천적 사상을 합치시켰다. 여기에 일만에 있어서의 국민사상이 분리될 수 없는 관계가 보인다. 이 관계는 사람들이 그다지 깨닫지 못하는 바이지만, 이는 양 국가의 사상정책으로서 장래에 크게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⁴⁶⁾

라고 주장한다. 즉 사쿠다는 “종래의 패도(霸道)를 배척하고 침략적 제국주의를 물리치며, 공산주의에 반격하고 삼민주의를 거부”하는 것이 “경국 일본”과 ‘보경 만주’가 일치하는 점”이었다고 단정한다. 또한 그 “경국 일본”과 ‘보경 만주’는 “국가를 도의에 의해 건설하고 대의를 사해에 퍼려고 하는 실천적 사상”으로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위 문장에 드러난 것처럼, “경국 일본”과 “보경 만주”란 서사가 “민정 일본”과 “연중 만주”, 그리고 국제연맹⁴⁷⁾에 대한 대항담론으로 발화되고 있음은 명백하다. 나아가 “일만에 있어서의 국민사상이 분리될 수 없는 관계”가 “경국 일본”과 ‘보경 만주’가 일치하는 점”에 그 근거가 있다고 사쿠다는 주장한다. 또한 만주국 탄생 이후에 전개된 “일만의 불가분 관계는, 그 위에 국민사상 및 국가제사에도 존재한다. 전자의 두드러진 예는 황도 및 왕도의 합체나 왕도낙토 및 도의세계 건설의 제창으로 나타났다. 이후에 양국이 함께 공산주의방지협정에 참가한 일도 있어, 후자는 후에 건국신묘(建國神廟)의 창건으로 이어졌다”⁴⁸⁾라고 사쿠다는 논한다. 그러나 이 “경국 일본”과 ‘보경

46) 위의 글, 43~44쪽.

47) 사쿠다는 “만주건국에 대해 듣고 놀라며, 노호하거나 갈채를 보내는 것도 할 수 없었던 것이 ‘민정 일본’과 ‘연중 만주’, 그리고 국제연맹이었다”(위의 글, 55쪽)라고 말한다.

48) 위의 글, 43쪽.

만주'라는 두 초영웅(超英雄)⁴⁹⁾을 통해 사쿠다가 궁극적으로 주장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논점은 “현대국가는 통치국가임과 동시에 경영국가이고, 통치국가로서는 사회에 견제되는 사회적 국가를 넘어서 사회를 통제하는데 이른 전체국가이다. 만주국은 시대의 요청에 따른 현대국가로서 성립되었다⁵⁰⁾”라는 발언에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한 관점에 서서, 사쿠다는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만주건국의 원리」를 끝맺음한다.

만주건국의 원리는 그의 사실(事實)을 이해시키는 이유의 근원적인 것이다. 이치(理)에 의해 사태(事)를 해명할 때, 국가창건이 필정(必定)의 사건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새 국가의 입각한 바를 밝히는 데에 머문다. 나아가서 새 국가의 생활행동의 당위를 생각하는 경우에는, 건국의 본의에 의거해 모든 당위의 정당성을 보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그 건국의 본의는 오로지 건국의 원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⁵¹⁾

2. “만주건국의 본의(=도의)”

사쿠다는 위에서 논한 ‘조리’로서의 「만주건국의 원리」를 발표한 수개월 후, 건국대학을 시작하고 명예교수로 신분이 바뀐 상황에서 ‘도의’로서의 「만주건국의 본의」를 내놓는다. 이 글에서 사쿠다는 “건국원리론은 나라가 창건된 사실(事實)의 원동력을 지시하는 것이지만, 건국본의론은 창건된 나라가 입각해야 하는 당위의 근본의(根本義)를 거양(擧揚)하는 것⁵²⁾”라고 거론하면서, “건국의 본의를 생각하는데 있어서의” 전제가 되

49) 위의 글, 54쪽.

50) 위의 글, 50쪽.

51) 위의 글, 56쪽.

52) 「滿州建国の本義」, 『建国大学研究期報』第4輯, 新京: 滿州帝国協和会建国大学分会 出版部, 1942(康德9).11(원고 작성은 9월 15일), 3쪽. 이후 「만주국학의 원리」와

는 인식의 하나로서, “국가의 본질이 무엇인가”⁵³⁾라는 물음을 던지고 있다. 그러한 “국가의 본질”과 관련하여 사쿠다는 다음과 같이 “국가의 기본적 도의”에 관해 서술한다.

국가의 기본적 도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국가 그 자체가 생활목적을 지닌 전체자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본질이 의식체(意識體)가 아니라고 한다면 국가의 도의는 생각할 수 없다. 도의국가는 마치 인간의 도의성이 그런 것처럼 선악·정사(正邪)의 도덕적 비판 앞에서 정의의 나라로 호칭되기 이전부터 국가가 의지성(意志性)을 갖추고 있어, 자연성의 사회와는 달리 선악·정사의 비판에 오를 수 있는 행위의 당사자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질적 국가인 이상은 어떠한 국가도 도의국가다. 그 도의에는 비판되어야 할 높고 낮음 및 여러 가지 차이가 존재하며, 그 국가도의의 기본이 되는 것이 입국의 본의다. (중략) 따라서 국가의 본질을 거론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건국의 본의가 무엇인가에 대해 직시하는 것이 아니다.⁵⁴⁾

사쿠다는 “본질적 국가인 이상은 어떠한 국가도 도의국가”이며, “국가도의의 기본으로 되는 것이 입국의 본의”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의 본질”로서의 “국가의 기본적 도의”로써 “건국의 본의”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 말한다. 이런 관점에서 사쿠다는 “건국의 본의를 명확히 하는 작업은 건국의 원리를 밝히는 것보다 곤란하다. 무릇 원리는 국가를 성립시키며 건국 당시와 그 전후에 대략 알 수 있는 것이지만, 본의는 국

『만주국학의 본의』는 함께 묶여져, 1944년 4월에 『滿州建國の原理及び本義』(滿州富山房)라는 서명으로 ‘건국대학연구원 현대교학 제2편(建國大學研究院現代學教本第二編)’으로서 출간된다.

53) 위의 글, 6쪽. 사쿠다는 그 외 “국가의 자체성”을 “건국의 본의를 생각하기 위한 인식의 하나로 꼽는 바, “보편성과 특수성이 불가분의 일체성으로서 국가에 구비되는 것이 그 자체성이”(8쪽)라고 지적한다.

54) 위의 글, 7-8쪽.

가를 움직여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어떤 것은 건국 당시에는 명확해도 함축에 머무는 것이 있고 이후에는 시기에 따라 전개되어 가는 것이 통례이므로, 그 함축되어 있는 것을 통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⁵⁵⁾라고 논한다. “만주국과 같은 신 국가에 있어서는”⁵⁶⁾ 특히 그러함을 사쿠다는 지적하는 것이다. 즉 사쿠다는,

이전까지 만주국의 제 학교에서 건국정신으로 가르쳐지는 것이 왕도낙토·민족협화·일만불가분(日滿不可分)·도의세계건설의 네 개조(個條)라 듣고 있다. 민족협화와 일만불가분은 건국 요건으로서 원리 안에 포함되고, 그것의 전개는 본의로도 된다. 왕도낙토와 도의세계 건설은 본의에 속하지만, 국본전정(고쿠혼텐테이, 国本奠定)의 조서 환발(渙發) 이후에는 건국본의관(建國本義觀)은 현격히 고양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위에 또한 만주국이 점점 발전해가면, 오늘날 마련한 사항도 점차 불완전한 것으로 화해갈 것이다.⁵⁷⁾

라고 부연한다. 그러나 사쿠다는 이 같이 ‘곤란’한 작업으로서의 “만주건국의 본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국의 의의에 착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논하면서, 다음과 같은 그의 주지를 표명한다.

드디어 아시아대륙에서 현대에 성립된 만주국으로서는 건국의 사명이 당연히 아시아부흥에 노력하는데 있어야 하도록, 만주국은 아시아부흥의 대륙적 거점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사명은 지금까지 막연하게 주장되어온 도의세계 건설이라는 표현에 구체적인 내용을 부여한다. 요약하자면 만주건국의 본의는 신명(神命)의 인도에 의해 창조된 아시아의 한 국가로서 전체성을 굳건히 하고 방족(邦族) 단결을

55) 위의 글, 9쪽.

56) 위의 글, 9쪽.

57) 위의 글, 10쪽.

이루어 일본국과 협동하고, 국체를 확립함으로써 민생을 안정시키고 국업(國業)을 경영하며, 그 위에 아시아부흥의 대륙적 거점이 되어 팔굉일우·협화만방(協和萬邦)의 세계 진운(進運)에 참여하는데 있다.⁵⁸⁾

‘건국정신’의 하나로서의 “도의세계의 건설”이란 바로 만주국을 “아시아부흥의 대륙적 거점”으로 육성시켜야 한다는 것이 그 명확한 의미이다. 그것이 “만주건국의 본의”임을 사쿠다는 숨기지 않는다.⁵⁹⁾ 사쿠다는 “이와 같은 숭고한 시명(示命)을 받은 만주국으로 하여금 처음으로 능히 아시아부흥의 대륙적 거점으로서의 임무를 짊어질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는 전세계를 향해 팔굉일우·협화만방의 신적(神的) 질서를 수립하는 진운 안에서 활약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소위 도의세계의 건설이 된다”⁶⁰⁾라고 강조한다. 이런 “도의세계의 건설”은 ‘침략주의’가 아닌 ‘공영주의를 향’한 “동아경륜(東亞經綸)의 국책”이라고 사쿠다는 말한다. “그 국책은 제일 먼저 만주건국으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지나사변의 처리방침으로 나타났으며, 지금은 대동아전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사쿠다는 이어 “이와 같은 일본국의 성격과 경우도 모르고 일본도 역시 구미열강과 같은 침략적 제국주의라 비난하는 자가 일본의 지식인 가운데 존재하는 것은, 아무리 구미의 사상적 모략에 편승했다 할지라도 일본사상계의 치욕이자 동시에 역사적 방법과 내관적(內觀的) 방법을 결여한 근세의 학문에 끌린 시대병이었다. 오랫동안 현실 상태는 반드시 일본의 진로에 가로놓인 저미의 구름을 일소하는 데는 도달하지 않았지만, 이 구름을 뚫고 전도를 비추는 빛을 보기에 이른 것은 실로 만주건국과 여기에 수반된 일만 양국의 협동체제였다”⁶¹⁾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만주건국과 여기에

58) 위의 글, 11쪽.

59) 사쿠다는 또 “만주국은 더욱 대륙적 거점이 되어 대동아에 사상(史上) 미증유의 대성전(大聖戰)이 전개되고 있다”(「滿州建國の本義」, 22쪽)고 말한다.

60) 위의 글, 23쪽.

수반된 일만 양국의 협동체제”는 “간나가라노미치(惟神の道)에 있어서의 공영(共榮)의 도의”의 기반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즉 사쿠다는,

공영의 도의는 한 나라 내의 제 연족(緣族)에 있어서의 공영의 도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공영으로 발전한다. 우선 일만 양국의 공영권에서 시작해서 다음으로 일만화(日滿華) 삼국으로 확대되고 이윽고 대동아공영권의 건설이 성취될 것이다. 그 다음은 전아시아의 공영권이고, 최종적으로는 전세계의 공영권에 도달할 것이다. 전세계의 공영은 물론 전아시아의 공영에 있어서도 근거를 이루는 것은, 제 종족 및 제 방족(邦族)의 협화다. 대동아공영권은 대개 같은 종족 안에서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 연족 및 제 방족의 협화를 기초로 한다. 만주건국은 안으로는 제 연족의 협화를 통해서 일 방족을 이루고 밖으로는 일만 양방족(兩邦族)의 협화를 통해서 협동조직을 공고히 해야 하는 만큼, 이를 관철하는 데는 오로지 공영의 도의로써 이룬다.⁶²⁾

라고 말한다. 나아가 사쿠다는 “대동아공영권에서 남은 장소인 소련령(嶺) 동북지역도 경로(經路) 여하는 여러 가지로 생각되어지더라도, 결국은 공영권 참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공영의 도의의 힘이 작용하기 때문이다⁶³⁾”라고 단정한다. 사쿠다는, 궁극적으로 “전 세계의 공영권에 도달”하기 위한 첫 기반이 되는 만주국은 현재 “국력을 기울여 대동아공영권에 협력하고 있는 중이다. 만주국이 아시아부흥의 거점이 되는 사명은 점차 명확해졌다. 그 사명을 자각해서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소위 도의세계의 건설에 종사하는 이유이다⁶⁴⁾”라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아시

61) 위의 글, 41~42쪽.

62) 위의 글, 95쪽.

63) 위의 글, 96쪽.

64) 위의 글, 97쪽.

아부흥의 거점이 되는 사명”이 바로 ‘만주건국의 본의’이고, 이는 “도의세계의 건설에 종사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다.

Ⅳ. “도의국가는 왕도가 행해지는 국가”

사쿠다의 구제(舊制) 야마구치(山口)고교 선배로서 건국대학의 창설 준비위원을 거쳐, 히로시마(廣島)문리과대학 명예교수 겸 1938년부터 건국대학 명예교수를 역임⁶⁵⁾하는 니시 신이치로는 1941년에 건국대학 연구원에서 『문교론』을 출간한다. 히로시마문리과대학 후학인 나와타 지로(繩田二郎)는 이 『문교론』에 관해, “당시의 국정과 사상계의 추세를 반영하여, 만주국에 있어서의 왕도낙토 이상을 서술한 책이었음으로, 상황으로서의 오늘날의 정세에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음은 모든 사상에 있어서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⁶⁶⁾”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나와타의 이 발언과는 달리 니시의 만주국(및 건국대학)과 관련한 담론이 “오늘날의 정세에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음은 모든 사상에 있어서 그러한 것과 마찬가지로만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문교론』의 마지막 장인 「7, 왕도낙토」에서 니시는 “민국과 왕도는 서로 상충된다. 이미 왕도를 말함으로 반드시 신민이 존재한다. 왕이 혼자 왕이 되지 못하며 만(萬) 신민이 있어서 왕자(王者)가 된다. 신민이 신민의 소임을 다하지 않고 왕이 혼자 왕도를 실현할 수는 없다. 고로 왕도라는 말 가운데는 충성, 효경의 도덕이 담긴다⁶⁷⁾”라며, ‘왕도’와 ‘신민’의 “충성, 효경의 도덕”을 강조한다. 니시는 만주국에서의 “협화의 정신 안에 충성봉공의 정신이 있어야 민국이 아니라 제국담

65) 「建国大学」, 『滿州国官吏録 薦任官以上』, 30쪽.

66) 繩田二郎, 『西晋一郎先生の生涯と哲學』, 東京: 理想社, 1953, 81~82쪽

67) 『文教論』, 新京: 建国大学研究院, 1941(康德8), 187쪽.

다”⁶⁸)라고 논하는 것이다. 니시는 이러한 “신민의 도”⁶⁹)는 만주국인(滿洲國人)에 있어 “도의의 정신과 실력을 가진 자가 출선하여 오족으로써 왕도낙토, 도의국가 건설을 스스로 짊어지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는다. (중략) 도의에 있어서는 다른 민족에 양보하지 않는다”⁷⁰)라고 말한다. “이 나라를 도의낙토로 하려는 왕자(王者)의 마음, 이를 각자의 마음으로 하”⁷¹)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만주국인’이 가져야 할 신민의 도 혹은 “국민도덕의 근본”은 어디까지나 “오족협화, 공존공영의 정신이 아니라 충효에 있다. 즉 니시는 다음과 같이 논한다.

공존공영을 지향할 때는 공존공영을 얻는 대신 세력의 대립균형에 전념하고, 이권 절충을 능사로 삼는데 그친다. 충효의 도덕을 근본으로 할 때는 오족의 협화·공존공영이 그 안에 있고, 더불어 인간의 참낙토로서의 천일합일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다. 이권 획득을 가지고 낙토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미망이다. 다만 마코토(まこと, 참)로써 서로 대할 때는 장낙(長樂)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이를 만주국 이상으로 해야 할 것이다”⁷²)

“오족의 협화·공존공영”을 지향하는 만주국의 신민으로서 가져야 할 “충효의 도덕” 혹은 마코토를 강조하는 니시의 입장은, 그가 1931년에 출간한 『忠孝論』(이와나미(岩波)서점) 이래의 지론으로 발화되고 있다.

니시는 1942년 5월의 『건국대학 연구기보』 3집에 「건국정신과 왕도」를 발표한다. 이 글 모두에서 니시는, 다음과 같이 당시 만주국의 건국정

68) 위의 책, 188쪽.

69) 위의 책, 191쪽.

70) 위의 책, 192쪽.

71) 위의 책, 193쪽.

72) 위의 책, 193-194쪽.

신으로 일컬어지는 ‘왕도낙토’와 ‘도의국가’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왕도낙토를 말하고 혹은 도의국가를 말한다. 그 왕도란 무엇인가? 낙토란 무엇인가? 도의란 무엇인가? 도의국가란 무엇인가? 반드시 가리키는 바 있어 (그 말이-인용자) 있겠지만, 각각 이를 소상히 밝히지 않으면 가리키는 바 있으나 가리키는 내용 없음을 면치 못한다. 왕도가 행해지는 곳 이외에도 낙토가 있는 것인가? 도의국가가 아닌 국가가 있는 것인가? 왕도와 도의는 다른 것인지 같은 것인지가 반드시 분명하지는 않다.⁷³⁾

이어 니시는 이러한 ‘왕도낙토’에서의 ‘왕도’론에 대한 해답을, 중국 (그의 용어로 ‘지나’)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 나오는 ‘왕도’론 검토에서 찾으려 한다. 그런 이후 니시는, “왕도에 의해서만 나라는 진정한 국가 즉 천하이다. 도의라 하는 것도 왕도가 세워진 곳에서 비로소 행하여짐으로, 진정한 국가는 도의국가 외에는 없다고 하는 의미도 여기에서 규명할 수 있는 것이다”⁷⁴⁾라고 말한다. 나아가 “인의오교(仁義五教) 외에는 도의도 없으므로, 왕도가 도의의 근본이다. 왕도가 행하여지는 곳과 위로는 천자를 봉대(奉戴)하는 곳 이외에는 진정한 도의국가는 없는 것이다. (중략) 지나(支那)윤리의 내용이 여기에 담겨있지만, 이런 내용은 천자의 예제(禮制)로서 존재함으로 사람들과 집집마다 도의가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중략) 왕도야말로 도의의 근본이다. 이것이 여러 경전에 대해 춘추가지니는 중대한 의의다”⁷⁵⁾라고 니시는 논한다. 따라서 니시는 “진정한 국가는 도의국가이고, 도의국가가 아닌 국가는 사이비 국가다. 고로 도의국

73) 『建國精神と王道』, 『建國大學研究期報』第3輯, 59쪽. 「건국정신과 왕도」는 니시가 사망한 이듬해에 후학인 니시카와 헤이키치(西川平吉, 1892-1964)가 ‘편찬한’ 니시의 유저 『人間即家國の説』(東京: 明世堂書店, 1944)의 제3장에 수록되었다.

74) 위의 글, 72쪽.

75) 위의 글, 81-82쪽.

가는 왕도가 행해지는 국가임에 틀림없다”⁷⁶⁾라고 주장한다. “도의국가는 왕도가 행해지는 국가”라는, ‘왕도’ 그 자체를 강조하는 이런 니시의 주장은 만주국 건국정신으로서의 ‘오족협화’에 그 중점이 있지는 않다. ‘오족협화’도 결국은 ‘타협’과 “권력의 평형”의 산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주국에서의 왕도의 보지자(保持者)인 만주국 황제는 제국일본의 “천황과 함께 존재함으로써 존재하”며, 만주국의 생기와 “존속은 천황 안에 천황과 함께 있는 황제의 지위가 엄연”함으로써 가능하다. 니시가 「건국정신과 왕도」에서의 ‘왕도’론을 통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점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만주국은 황제를 받드는 제국으로 원래부터 오족협화의 공화국은 아니다. 오족이 서로 협화하여 낙토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일시동인(一視同仁)의 황제에 충성함으로써 동등하게 황제의 적자(赤子)인 제족(諸族)이 서로 친히 지내고 함께 번영하려는 것이다. 마치 형제가 서로 친목이 두터운 근본이 서자를 일시동인하는 부모 마음을 마음으로 하는 것처럼, 충군(忠君)을 결한 오족협화는 결국 타협에 빠지고 심지어는 권력의 평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만주국에 진왕(眞王)이 출현하는 것은 역사적 일본 천황 안에, 천황과 함께 존재함으로써 존재하는 황제의 즉위를 의미한다. 또한 만주라는 제 민족군(群)이 아닌 만주국이라는 나라가 생겨난 것은 천황에 의해서이며, 만주국 존속도 천황 안에 천황과 함께 있는 황제의 지위가 엄연함에 따른다. 그 엄연함의 이유는 만주 국민의 황제에 대한 충성에 있다. 군(君)에 대한 인민(仁民)의 충(忠)을 결하고서는 사람에게 도가 없고, 세상에 낙토는 없다.⁷⁷⁾

76) 위의 글, 84쪽.

77) 위의 글, 86-87쪽.

V. 최남선과 건국대학, 그리고 ‘도의’ 담론

1. 건국대학과 최남선에 있어서의 ‘도의’

최남선이 식민지조선 측에서의 소위 ‘정책교수’로서 초빙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공식적인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최남선의 건국대학 ‘임관’ 일자(1938년 4월 30일⁷⁸⁾이며, ‘사관(辭官)’ 일자(1943년 2월 12일⁷⁹⁾이다. 최남선은 임관 5개월 후인 1938년 10월 1일에 “신경(新京)건국대학교수 최남선”이란 필자 직함으로 「건국대학과 조선청년」을 발표하고 있다. 이 글 모두에서 최남선은 “滿洲國의 最高學府 建國大學의 學園”이 “滿洲國 陸地測量의 原點 標式으로서 지금은 반드시 道義興隆의 原點인 것을 아울러 表示하는 듯이 되어있는 것도 그 큰 使命으로 보아서 當然한 抱負일 것이다”⁸⁰⁾라고 말한다. 최남선은 건국대학이 “道義興隆의 原點”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나아가 최남선은 “大學의 趣旨는 學生募集公告文에

78) 『滿洲國政府公報日誌』 第1218号(1938[康德5年].5.3)에는 만주국주화(駐華)특명공사로서 건국대학에서 동양정치사를 담당하는 나카야마 마사루(中山優, 1894~1973)와 함께 최남선에 대해, 「建國大學教授敍簡任二等」(10쪽)·「給四級俸」(11쪽)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建國大學」, 『滿洲國官吏錄: 薦任官以上』, 新京: 國務院總務庁人事處, 1938(康德5).7.15, 30쪽. 동년 5월에 출간된 『三千里』 제10권 제5호의 「當面の 登場 人物. 崔南善氏 建國大學 教授로 新京으로 가는 心境 打診」에는, 최남선이 건국대학 교수로 부임하기 위해 4월 5일 새벽에 경성을 떠났음을 전하고 있다.

79) 「建國大學教授 崔南善 同 中山 優 同 鮑明珍 同 蘇益信 (중략) 辭官照准 康德十年二月十二」 『滿洲國政府公報日誌』 第2618号(1943[康德10].2.13), 283쪽. 이 기록으로 보아, 최남선은 같은 “정책교수로 불렸”(『建國大學と民族協和』, 99쪽)던 일본인 나카야마 마사루와 중국인 바오밍첸(鮑明珍, 1904?) 및 수이신(蘇益信)과 함께 건국대학을 떠난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카야마 마사루는 일찍이 “건국대학 최고의 의의”는 “동양의 연맹을 만들기 위한 정치대학이”란 점에 있으며, 따라서 “건국대학으로 하여금 실질상의 동아연맹대학으로 해야 한다”(中山優, 『東亞連盟への途』, 東京: 大民社出版部, 1940, 33~34쪽)라고 주장한 바 있다.

80) 「建國大學과 朝鮮靑年」, 『三千里』 제10권 제10号, 京城 三千里社, 1938.10, 170쪽.

있는대로 建國精神의 神髓를 體得하고 學問의 蘊奧를 研究하며 몸으로서 이거슬 實踐해서 文武不岐, 知行合一, 勤勞自律의 行에 徹頭徹尾하며, 卍道義世界建設의 先覺의 指導者로서 나라의 楨幹 棟梁될 만한 人才의 養成에 있다”고 하여, ‘건국대학령’ 제1조에 적시된 내용을 부언해서 서술하고 있다. 또 “이같이 하여 前期三年間에 建國精神을 體得하고 道義世界建設의 先覺的 指導者다운 自覺과 信念을 양하며 나라를 위하여 楨幹한 人格의 根本을 練成하고 後期에는 그 基礎우에 깊은 學問의 蘊奧를 研究하여 滿洲學園을 究明하고 國家負荷의 重任에 當하는 實際의 材器를 練成할 것이다”⁸¹⁾고 하여, 건국대학의 설립 목적이 만주국 건국정신인 “道義世界建設의 先覺的 指導者” 양성에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조선의 “建大를 志望하는 靑年 諸君”을 대상으로 한 발언에서 최남선⁸²⁾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대는 몽고 어느 땅 사람이오”하고 물으면 그는 日本人이요, 日本人이러니하고 말해보면 그는 滿洲人으로서 區別할 수 있는 사람은 露人 뿐으로 앞으로 六年이 지나면 皮膚色까지 分別키 어려울지 모른다. ⁸³⁾

81) 위의 글, 172~173쪽.

82) 사쿠다는 만년에, 조선 출신의 건국대 학생들과 최남선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억의 변을 말한 바 있다.

“조선계 학생이 내심으로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고 있었음은 일찍이 아마구치 고상교(山口高商校)에서 조선계 학생의 보증(保証)교관으로 있을 때의 경험으로 대충 짐작하고 있었다. 나로서는 서북(西北)의 위협이 거의 사라지면 조선 독립의 기운이 찾아오리라 생각했고, 또 그것이 일선합방(日鮮合邦)을 재가하신 메이지(明治) 천황의 의도시리라 생각하고 있었기에, 새삼스럽게 조선 청년들이 장래에 기대하는 꿈을 깨트리려 하지 않았다. 다만 애석하게 꽃봉오리를 피우지 못하고 지지 않도록 마음을 썼다. 건국대학에는 명망 높은 최남선교수도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염려하지 않았다. 조선계 학생들은 시세(時勢)를 이해하고 있었고 불온한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이후에 대동아전쟁이 시작되어 일본계 학생이 속속 출진할 무렵에는, 병역의무가 없는 조선계 학생 가운데서 자발적으로 군무(軍務) 등에 참가한 이도 있었다고 들었다”(作田莊一, 『道の言葉』 第6卷, 1967, 232~233쪽).

83) 「建国大学과 朝鮮靑年」, 172쪽.

最後에 建大를 志望하는 靑年諸君에게 告하노라. 나라를 위하여 一身을 鬻일 큰뜻이 있고 나라를 위하여 어떠한 困苦缺乏이나 어떠한 勤勞라도 사양하지 않을 決心이 있으며 使命이면 던진 돌이 되고 一生을 豁속에 못치더라도 후회함이 없을 者는 오라. 그러라면 먼저 身體가 건장해야 하고 철벽이라도 뚫고나갈 氣혼과 鐵의 意志를 가져야 한다. 吾人은 吾國을 構成하는 各民族中에 이러한 靑年이 많기를 바라 고 기도한다. 이같은 큰힘을 갖인 靑年이라야 學資도 國家에서 負擔하 고 將來棟梁의 材로서 重任에 當하게 되는 것이다.⁸⁴⁾

위에서의 ‘나라와 ‘오국’ 및 ‘국가’라는 용어 사이에는 그 뉘앙스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것이다. 즉 최남선이 말하는 ‘나라’가 만주국정부 관리(공무원)의 포스트를 가진 입장에서의 ‘오국’ 및 ‘국가’와 어떠한 함의의 겹침이나 어긋남, 혹은 해소가 존재하는지는 알 수 없다. 아니 이러한 물음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이 글에는 앞서 본 사쿠다의 논의처럼, 만주국 ‘건국정신’에 적용된 종주국 일본의 ‘제국의식’으로서의 “도의흥룡”·“도의세계건설”이라는 서사들이 각각적으로 발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최남선은 1936년 2월에 발표된 「조선의 고유신앙」⁸⁵⁾에서 이미 “도의적 진보” 혹은 “도의세계”란 서사를 발화한 바가 있다.

최남선은 1941년 2월 3일부터 한 학기에 걸쳐 동안 『만몽문화』를 강의하는 바, 이것이 그가 건국대학에서 한 처음이자 마지막 강의로 알려져

84) 위의 글, 173쪽.

85) 이 글은 1935년에 최남선이 조선총독부 “중추원의 신앙심사위원회석상에서 강의한 것”으로, 『心田開發に關する講演集』(朝鮮總督府中樞院, 1936. 2)에 「朝鮮の固有信仰(上)·(下)」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朝鮮の固有信仰に於て」, 『朝鮮』 第250号心田開發特輯号(朝鮮總督府, 1936)에도 「朝鮮の固有信仰に於て」란 타이틀로 수록되어 있다. 필자 조사로는 식민지조선의 지식인 가운데 ‘도의’라는 서사를 최초로 발화한 사례는 최남선의 「조선의 고유신앙」에 처음 보이지만, ‘도의국가’를 발화한 경우도 본고에서 고찰하는 『만몽문화』에서가 처음이다.

있다.⁸⁶⁾ 강의 모두에서 최남선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86) 이에 관해 저널리스트 마에카와 게이치(前川恵司)는 “최남선 교수는 건국대학에서 만주문화학 강좌를 가르쳤다. 그러나 처음 한 학기를 강의한 이후는 교단에 설 수 없게 되었다. 조선반도는 물론 만주·몽고(蒙古)·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시아문화의 중심은, 조선민족의 시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전설이 있는 백두산문화에 있다고 강의한 것이 “조선 출신 학생을 선동하는 것이다”라고 문제시되었기 때문이다. (중략) 최남선 교수는 고구려·고려로 내려가는 조선민족의 원류가 구축한 문화와 동북아시아문화와는 강한 연계가 있다고 가르치고 싶었는지는 모르지만, 당시 백두산 기슭 깊은 숲은 항일빨치산에게는 절호의 잠복지였다. 반일운동의 성지(聖地)가 된 백두산을 동북아시아 문화의 원류로 본다는 관점은 견해는, 빨치산토벌을 계속하고 있던 관동군을 지나치게 자극할 것이라고 건국대학 당국자는 염려했을 것이다. 후원자였던 이시하라(石原) 참모는 이미 1938년(昭和13) 8월에 만주국을 떠났다”(前川恵司, 『帰郷—満州建国大学朝鮮人学徒 青春と戦争』,三一書房, 2008, 176~177쪽)라고 말한다. 또 마에카와는 건국대학 제2기 입학생이었던 “오창록(吳昌祿) 씨도 일요일이나 휴일은 거의, 교단에는 서지 않았던 최남선 교수 관사에서 보냈다. 교단에는 서지 않았지만 최남선의 관사는 조선반도 출신의 건국대생들이 모이는 살롱이 되어 있었다. 학생들은 그곳에서 저녁도 대접받았다. (중략) ‘당시 일본의 내선일체라는 식민지정책은 현실적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다. 동조동근(同祖同根)라는 것은 완전히 엉터리 이야기기로, 우리들이 일본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당치도 않다. 자네들은 조선이고, 앞으로 넘어지든 뒤로 쓰러지든 어디에서 보든지 조선인이다. 사천년 고유의 문화와 전통을 가진, 단일민족인 우리들의 긍지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최남선 선생은 역설하셨다. 강영훈(姜英勳) 씨는 이 살롱에서 주고받은 일단의 이야기를 하면서 ‘선생은 현실주의자였다. 독립이 실현될 결정적인 시기를 대비해 지금은 묵묵히 자신들의 실력을 비축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었다. 동시에 민족협화와 동화(同化)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라고 열정적으로 말씀하셨다. 협화란 각각의 민족이 각기의 실력이나 문화를 발휘할 때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다. 그럼으로 일본과 우리들의 협화는 우리들의 힘이 있어 처음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을 이어갔다. 모두 스승의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진지하게 들으려고 했다. 누구도 드러내놓고 입 밖에 내지는 않았지만, 긴장된 살롱 저편에 보이는 꿈은 선명했다. 민족의 독립이다”(177~179쪽)라고 전한다. 나아가 마에카와는 “홍영식 씨는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한 1941년(쇼와昭和16)년 12월 8일 흥분하는 일본인 학생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최남선 교수의 관사를 방문했다. 선생은 만나자마자 곧 ‘일본이 망하고 조선이 독립하는 날이 가까워졌다’라고 단언했다. 최남선 교수는 세계정세나 미국과의 국력 차에서 일본의 패전은 자명하다고 역설했다. 다른 조선출신 학생도 최남선 교수가 ‘일본은 머지않아 패망한다. 그때까지 몸을 소중히 하면서 기다려’라고 말했다고 회상하고 있다”(188쪽)라고 적고 있다.

만주국 또는 본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의 의미에 있어서 만몽문화의 체계적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비재(非材) 천학(淺學)의 몸으로 감히 이에 당치 아니함은 말할 나위도 없으나, 다만 유유금고기만년(悠悠今古幾萬年), 망망동서기천리(茫茫東西幾千里)에 걸친 일대 영역에서 특이한 인문발전의 발자취를 찾아, 그것으로써 도의국가의 새로운 문화건설에 얼마만큼이나마 이바지하려고 함은 학인으로서 흔쾌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만주의 협화국에서는 역사적 제(諸)민족이 현실적 구성분자로 되어 있어, 시간과 공간이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듯하며, 현재 본 대학에 있어서는 이른바 오족(五族) - 더구나 그 배후에 과거의 온갖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제(諸)분자 - 이 마음을 같이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여 똑같은 영광을 누리려 하고 있다. 만몽문화의 연구 및 그 건립을 위하여 최상의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 셈이다. 가르친다 배운다 하는 테두리를 뛰어넘어 서로서로 다 같이 이 영예로운 의무에 마음껏 협동·합작의 정성을 바쳐 보지 않겠는가.⁸⁷⁾

이 『만몽문화』 강의는, 아직도 “자료 수집” 내지 “모색의 시기”에 있어 “하나의 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만몽문화의 종합적 관찰” 혹은 “만몽문화의 체계적 연구”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여기서 알 수 있다. 또 이것은 “유유금고기만년, 망망동서기천리에 걸친 일대 영역에서 특이한 인문발전의 발자취를 찾아, 그것으로써 도의국가의 새로운 문화건설”을 추구하려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즉 이 “만몽문화의 연구 및 그 건립”은, “도의국가의 새로운 문화건설”을 지향하는 만주국과 건국대학의 중요한 연구대상인 것이다.⁸⁸⁾ 즉 최남선은 “만몽문화의 연구 및 그 건립”

87) 『만몽문화』. 인용은 『육당최남선전집』 제10권, 서울: 현암사, 1974, 316쪽. 『만몽문화』는 일본어 ‘강의록’이나 아직 원문의 소재를 확인하지 못했다.

88) 강해수, 「최남선의 ‘만몽(滿蒙)’ 인식과 제국의 욕망」, 『역사비평』 통권76호, 서울: 역사비평사, 2006 가을, 73쪽.

은 “처음부터 학문적 약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신(新) 국가 만주가 그 빛나는 문화적 사명을 옛 전통에 돌이켜 생각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함이 있다고 하겠다”⁸⁹⁾라고 주장한다. 여기에서는 ‘문화사’적 관점으로써, 정치·경제·군사적 국가로서의 만주국 수립의 근거를 논하려는 건국대학 교수 최남선의 입지를 발견할 수 있다.⁹⁰⁾ 6월 20일에 끝나는 이 『만몽문화』 강의를, 최남선은 다음과 같은 종강의 변으로 마무리한다.

오늘날 아직도 통속적 의미밖에 안 되는 ‘만몽문화’란 것이 학술적 근거 위에 훌륭하게 세워지고, 이른바 생활협동체는 급조된 이념이 아니라 역사적 본래성의 것이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을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만주국의 학도로서 우리들의 영광스러운 임무이며, 이것을 완성함으로써만 민족협화에 사실적 박력이 가해질 것이다. 그리고 넓은 동정과 깊은 이해와 올바른 처리에 의해서만 민족문화의 고찰을 할 수 있음을 차제에 다시 한 번 강조해두고자 한다.⁹¹⁾

최남선이 여기서 생각하는 ‘만몽문화’는 형태를 갖춘 존재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완성을 향하여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최남선은 ‘만몽문화’는 그것의 ‘성립의 담론’을 통해 그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오족(五族)’의 “생활협동체는 급조된 이념이 아니라 역사적 본래성의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민족협화에 사실적 박력”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는 것이다.⁹²⁾

한편 이 시기 최남선의 ‘도의’ 담론 개진의 한 배경으로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글이, 1941년 1월호의 『삼천리』에 실린 「金日成 等 反國家者에게

89) 『만몽문화』, 331쪽.

90) 「최남선의 ‘만몽(滿蒙)’ 인식과 제국의 욕망」, 75쪽.

91) 『만몽문화』, 403쪽.

92) 「최남선의 ‘만몽(滿蒙)’ 인식과 제국의 욕망」, 83쪽.

勸告文－在滿同胞 百五十萬의 總意로」이다. 권고문 형식의 이 논설은 '新京特別市 韓日通 鷄林會內의 '東南地區特別工作後援會本部' 이름으로 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최남선은 여기에 기요하라 노리예키(清原範益)⁹³⁾ 및 나카하라 고준(中原鴻洵)⁹⁴⁾과 더불어 고문으로 이름이 올라와 있다.⁹⁵⁾ "김일성 등의 반국가자"에 대한 "최종적인 大殘滅戰"⁹⁶⁾을 앞두고 발표된 이 권고문 작성에 최남선이 어떻게 '관여'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이 글에는 "민족협화의 실현과 道義世界 創成의 大理想", "정신적인 도의적인 국가의 이익을 본위로 한 동양적인 이상사회의 신질서를 수립", "세계에 자랑할 도의세계의 창건을 국시로 하여" 등의 서사가 있어, 최남선의 '도의'론 주장과의 공통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 권고문에는 현재 "일본제국은 東亞諸민족을 이러한 殺伐적인 공산주의禍" 및 "歐米白人の 傀儡가 되어 저항하는 蔣介石정권을 西蜀에 까지 驅逐하"고 있다고 하여, '도의'라는 서사가 '공산주의(赤禍)' 및 장개석정권에 대한 대항 개념으로서 발화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의'가, "조선 내에 있어서는 이천삼백만의 동포는 일본제국의 위광 하에서 과거의 편파(偏頗)한 민족주의적 관념을 최후의 일인까지 완전히 청산하"여 "편파(偏頗)한 민족주의적 관념"을 초월하자고 하는 담론으로서 발화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만몽문화」 강의 후, '도의'라는 서사가 등장하는 최남선의 또 다른 글이 1943년 3월에 발표한 「만주건국의 역사적 유래」(한국어문)이다. 최

93) 이범익(李範益, 1883~?)의 창씨명. 송병준의 비서관으로 출발하여 군수 도지사를 거쳐, 1937년 7월에 만주국 초대 간도(間島)성장에 임명되었다. 1940년 5월에 만주국 참의부 참의로 취임하였다.

94) 유흥순(劉鴻淳, 1889~1950)의 창씨명. 만주국 간도성의 실업청장과 민생처장을 거쳐, 1940년에 간도성 차장으로 임명되었다.

95) 이 밖에 총무로는 최남선의 매제였던 박석윤(朴錫胤)과 伊原相弼, 그리고 金應斗의 이름이 보인다.

96) 「金日成 等 反國家者에게 勸告文－在滿同胞 百五十萬의 總意로」, 『三千里』 제13권 제1호, 1941.1, 206쪽.

남선의 건국대교수 공식 퇴임일자는 1943년 2월 12일이지만 ‘만주 건국대학 교수’ 직함으로 이 글을 발표한 것으로 보아 퇴임 이전에 작성된 글임을 알 수 있다. 최남선은 이 글에서 “만주건국이 표면의 실현을 보인 것은 10여 전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될 약속으로 말하면 아득한 옛날로부터 잠복하여 나오는 것으로서, 드러난 10년의 배후에 숨은 누천년이 있음을 잊어서는 아니 된다”⁹⁷⁾라고, 만주국 수립 후 10년이 경과된 시기의 소감을 피력한다. 나아가 최남선은 ‘북방선수’ 혹은 ‘동방대표’로서의 제국일본에 의한 만주국 수립은 “영토적 야심이나 민족적 유린에 의하지 아니하고, 어디까지나 도의본위·해방주의를 취하는 것이 전에 보지 못한 특색을 짓고 있다”⁹⁸⁾라고 단정하면서, 그 만주국 수립이 “이미 약속요 운명인 바에, 누가 좋다거니 싫다거니, 또 당장에는 아프거니 쓰리거니를 묻지 않고, 엄연한 사실이 특이(特爾)한 위력으로써 그대로 진행할 것뿐이다”⁹⁹⁾라고 주장하고 있다.

2. 건국대학 퇴직 이후의 최남선과 ‘도의’

건국대학을 물러난 이후의 최남선의 ‘도의’론 개진은 ‘학도출진’을 중용하는 글 및 시국 논설에 보이고 있다. 1943년 11월 5일자 『매일신보』에 발표한 「學徒여 聖戰에 나서라—보람있게죽자 臨戰無退空論無用」과 동년 11월 20일자 『매일신보』의 「나가자 靑年學徒야—學問의 眞理를 行動으로 바치라」, 그리고 이듬해 1월 1일자 『매일신보』의 「亞細亞의 解放—勝

97) 최남선, 「滿洲建國의 歷史的 由來」, 『新時代』 제3권 제3호, 京城 新時代社, 1941. 3, 34쪽.

98) 「滿洲建國의 歷史的 由來」. 필자가 입수한 자료(서강대학교 로올라도서관 전자도서관)에는 이 부분이 낙장 파손되어 있다. 인용은 『육당최남선전집』 제10권, 414~415쪽.

99) 구체적인 것에 관해서는, 「최남선의 ‘만몽(滿蒙)’ 인식과 제국의 욕망」, 83~85쪽을 참조바람.

리는 우리것」 등이 그것이다. 먼저 「學徒여 聖戰에 나서라(중략)」에서 최남선은 “滿洲事變으로부터 支那事變 乃至 大東亞戰의 一連的 展開”에 따라 “世界歷史의 合理的 轉換이 行하러 하며 大東亞의 解放이 實現되려 하며, 人類의 生活이 道義의 우에 建設되려 하며, 神皇의 大道가 八紘에 光被되려 하나니 이러한 것을 ‘聖戰’이라 니르지 아니하면 다시 무엇이랴 닐커르랴”라고 말한다. 「나가자 靑年學徒야(중략)」에서는 “학도의 예리한 예지를 빌리 안코서는 창조할 수 업는 도의문화(道義文化)”를 거론하면서,

황공하옵께도 폐하의 부르심을 받자옵고 황도의 선양 도의건설 그리고 대동아의 건설을 계기로 한 인류의 구제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지금 계군에게 요망되어 있다. 계군! 대동아의 성전은 이름 비록 동아이지만은 이는 실로 신시대 신문화의 창조운동이며 세계역사의 개조이다. 바라건대 일본국민으로서의 충성과 조선남아의 의기를 발휘하야 부여된 광영의 이 기회에 분발용약하야 한사람도 빠짐없이 출진하기를 바라는 바이다.¹⁰⁰⁾

라고 피력한다. 즉 “황도의 선양 도의건설 그리고 대동아의 건설”을 위한, 전장에서의 “일본 국민으로서의 충성과 조선 남아의 의기를 발휘”하기를

100) 위 문장에 앞서 최남선은 “계군 우리들이 대동아전쟁의 진두에 섬은 물론 일본국민의 충의성(忠義性)에 투철하기 위해서이지만 다시 우리 조선사람의 입장으로서 본다면 쏘 하나의 간절한 기대가 여기 숨어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들이 일허버린 ‘마음의 고향’을 발견하는 것이요 잡자는 혼을 깨우쳐 우리들 본연의 자태로 도라가는 길이다. 그리하야 오랜동안 라약안일에 더럽힌 남루를 버서던지고 ‘의’에 살고 ‘의’에 죽고 ‘용(勇)’에 일어서고 ‘용’에 넘어짐을 제-의로 한 우리들의 그전 모습을 차져내는 길이다. 겸창무사(兼倉武士)들과 함께 세계역사상에 무사도의 쌍벽이라고 일컫어온 바 고구려무사(高句麗武士), 신라무사(新羅武士)의 무용성을 차져내어 그 씩씩한 전통을 우리들의 생활원리로 하고 우리들의 정신적 부활을 꾀하는 것이 오래동안 우리들에게 요망되어 오든 바 그 절호한 기회가 대동아의 전장에 그 특별지원병으로서의 용맹한 출진에 의하야 발견되는 것을 나는 통감하는 바이다”라고 피력한다.

최남선은 중용한다. 최남선에 있어서 “일본국민으로서의 충성”과 “조선남아의 의기”라는 두 층위는 ‘도의’라는 담론공간에서 양자 간의 모순과 긴장을 사장(死藏)하면서 동일 범주에서 호출되고 있다. 한편 「아세아의 해방(중략)」에서 최남선은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東亞戰은 決코 日本만의 戰爭이 아니오 또다른 어느 一國民 一民族 對 他國民族과의 鬪爭도 아니라 진실로 日本 及 日本情神을 發端者 또 中樞勢力 또 指導原理로 하는 全東亞의 解放運動이오, 이 東亞解放運動은 그대로 곳 世界改造의 重大한 楔子인 同時에 人類歷史의 ‘世界’化를 現前케 하는 機緣이다. 이러한 世界史的 ‘쓸렌’성과 人類的 普遍妥當性으로써 本質을 삼는지라. (중략) 東亞人으로서 義에 勇하며 世界人으로는 眞理에 忠하여 다함께 眞正한 ‘世界’史의 礎를 道義로써 記錄하기에 成功해야 하는 것이다.¹⁰¹⁾

최남선은 여기에서 ‘동아진’이 “歐羅巴 乃至 그 延長으로 인 米洲勢力”의 “제국주의 또 자본주의적 침략”으로부터 ‘동아해방운동,’ 나아가서는 ‘세계개조’를 이룩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인류역사의 ‘세계’화를 현전케 하”는 “세계사적 ‘쓸렌’성”에 의한 것이다. 그러한 “쓸렌’성”은 ‘도의’에 의한 “세계사”의 형성을 향한, 제국일본에 의한 ‘도의의 전쟁’으로 구체화되었다고 최남선은 논하는 것이다.

101) 『매일신보』의 이 논설과 같은 면 상단에는, 도조 히데키(東條英機, 1884~1948)의 ‘首相談’으로서 「一億總戰鬪配置-決勝의 大道驀進」이 보인다. 한편 1944년 2월호의 『신시대』에 실린 「성전의 說文」에서 최남선은, “아시아의 해방”으로서의 일본제국의 ‘성전’의 의미를 풀이하고 있다.

Ⅵ. 나가며

‘건국정신’을 기치로 내건 만주국은 그 “건국의 원리”뿐만 아니라, 그러한 ‘원리’를 있게 하는 당위성으로서의 ‘본의’도 필요하였다. 사쿠다에 있어서의 ‘만주국학’이란 그 ‘건국정신의 원리와 본의’가 일치하는 지점에 존재하고, 또 그러한 지점을 지향하고자 하는 담론이었다. 하지만 사쿠다의 원망(願望)과는 달리 ‘만주국학’은 만주국의 일반 ‘국민(민중)’과는 유리된, 만주국 현실의 모순에 의해 처음부터 차질을 안고 가는 담론이기도 했다. 사쿠다가 말하는 ‘본의’, 즉 ‘도의’로서의 만주국의 ‘도의국가’론은 그러한 차질의 예감과 초조감 위에 발화해간 담론이었다. 이는 다시 말해 제국일본의 ‘제국의식’으로서, 만주국의 ‘건국정신’에도 적용된 ‘도의국가’ 담론은 그러한 차질을 처음부터 안고 가는 허위의 담론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건국대학의 학술담론으로서의, 사쿠다의 ‘오족협화’로서의 만주국 ‘건국정신’을 둘러싼 “건국의 원리와 본의” 논의는, 전체적으로 종주국 일본을 포함한 제국일본의 학술담론의 한 근간을 형성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한 도의·도의국가의 담론 공간 안에서, 니시와 식민지 조선의 ‘지식인’¹⁰²⁾이었던 최남선은 나름의 작업을 영위해나갔다.

이처럼, “건국의 원리(정신)과 본의”로서의 ‘국가지지(즉 ‘주권’)’는 처음부터 그 모순과 차질을 안고 출발한다. 그것은 ‘식민지국가(제국)’으로서의 만주국뿐만 아니라, 국민국가 및 해방된 신생독립국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의 경우 해방공간에서 이승만(李承晩, 1875~1965)의 제1공화국으로 이어지는 ‘국민도의’와 ‘도의국가’ 담론은, ‘건국(혹은 ‘정부수립’)’이라는 새로운 주권권력의 탄생과 더불어 발화되었다. 다시 말하면

102) 여기서의 ‘지식인’이란 국민국가를 전문적으로 재표상하는 엘리트집단을 의미한다. 에드워드·W. 사이드 著, 大橋洋一 訳, 『知識人とは何か』, 東京: 平凡社, 1995를 참조.

이러한 주권권력의 창출과 이를 위한 규율적인 실천력으로서의 ‘도의성(순수성¹⁰³⁾)’의 담론을 필요로 하였다. 이를 통해 주권권력과 그 통치대상 사이의 간극을 잇는 ‘국가공공성’이 창출된다. 거기에서의 ‘도의’는 항상 ‘도의적 퇴폐’라는 서사에 의해 창출되며, 그에 따라 ‘도义的한국(道義韓國)’·‘환원도의(還元道義)’·‘도의국민’·‘민족도의’가 강조된다. 이 같은 영위와 그 기제는 박정희(林正熙, 1917~1979)정권의 ‘국민정신함양’과 ‘도의양양운동’의 전개로 계승되었다.¹⁰⁴⁾ 이러한 ‘도의국가’·‘국민도의’의 지배 규율의 실천력에 대한 강조는, “도의실천의 불철저” 혹은 “도의의 박약”을 배제한다는 ‘전후’ 일본의 “평화국가·문화국가” 담론에서도 마찬가지로 있다.¹⁰⁵⁾ 日本空間

논문 투고일 : 2016년 10월 30일

논문 심사일 : 2016년 11월 21일

게재 확정일 : 2016년 12월 8일

103) *Sovereignty and Authenticity: Manchukuo and the East Asian Modern*.

104) ‘만주형(型) 모델’과 박정희정권기의 ‘개발 체제의 연속성에 관한 근래 한국과 일본에서의 연구에는 姜尚中·玄武岩, 『大日本·滿州帝国の遺産』(興亡の世界史18, 講談社, 2010)과 한석정, 『만주모던-60년대 한국 개발 체제의 기원』(문학과 지성사, 2016) 등이 있다. 박정희정권의 ‘국민정신함양’·‘도의양양운동’과 관련해서는, 강해수, 「도의의 제국론의 射程-해방 후·전후 한일 양국의 ‘도의’ 담론과 이퇴계」, 『일본공간』 제11호(2012)를 참조바람.

105) 이와 관련해서는, 「제국일본의 ‘도의(道義)국가’론과 ‘공공성’-와쓰지 데쓰로(和辻哲郎)와 오다카 도모오(尾高朝雄)를 중심으로」를 참조바람.

참고문헌

〈1차자료〉

- 「金日成 等 反國家者에게 勸告文—在滿同胞 百五十萬의 總意로」, 『三千里』 제13권 제1호, 1941.1.
- 「當面の 登場 人物. 崔南善氏 建國大學 教授로 新京으로 가는 心境 打診」, 『三千里』 제10권 제5호, 1938.5.
- 최남선, 「建國大學과 朝鮮青年」, 『三千里』 제10권 제1호, 1938.10.
- 최남선, 「만몽문화」, 『육당최남선전집』 제10권, 1974.
- 최남선, 「滿洲建國의 歷史的 由來」, 『新時代』 제3권 제3호, 1941.3.
- 최남선, 「성전의 說文」, 『신시대』, 1944.2.
- 최남선, 「學徒여 聖戰에 나서라—보람있게죽자 ‘臨戰無退’空論無用」, 『매일신보』 1943.11.5.
- 최남선, 「나가자 青年學徒야—學問의 眞理를 行動으로 바치라」, 『매일신보』 1943.11.20.
- 최남선, 「亞細亞의 解放—勝利는 우리것」, 『매일신보』 1944.1.1.
- 崔南善, 「朝鮮의 固有信仰(上)·(下)」, 『心田開發に關する講演集』, 京城: 朝鮮總督府中樞院, 1936.2.
- 崔南善, 「朝鮮의 固有信仰に於て」, 『朝鮮』 第250号 [心田開發特輯号], 京城: 朝鮮總督府, 1936.3.
- 建國大學 編, 『建國大學要覽』, 新京: 建國大學, 1941(康德8).
- 作田莊一, 『國民科學の成立』, 東京: 弘文堂書房, 1935.
- 作田莊一, 「滿州國建國大學創立の精神と組織」, 『文部時報』 第604号, 東京: 帝國地方行政學會, 1937.12.
- 作田莊一, 『國家論』, 東京: 弘文堂書房, 1940.
- 作田莊一, 『現代의 學問と滿州國學의 研究法』, 新京: 建國大學研究院, 1940(康德7).
- 作田莊一, 『修身道德』, 新京: 建國大學研究院, 1941(康德8).
- 作田莊一, 「發刊의 辭—現代의 學問に就て」, 『建國大學研究期報』 第1輯, 新京: 滿州帝國協和會建國大學分會出版部, 1941.
- 作田莊一, 『大東亞戰の意義』, 新京: 建國大學研究院, 1942(康德9).
- 作田莊一, 「滿州建國의 原理」, 『建國大學研究期報』 第3輯, 新京: 滿州帝國協和會建國大學分會出版部, 1942(康德9).5.

- 作田莊一, 『現代科学と満州国学』, 新京: 満州帝国協和会建国大学分会出版部, 1942.
- 作田莊一, 「満州建国の本義」, 『建国大学研究期報』第4輯, 新京: 満州帝国協和会建国大学分会出版部, 1942(康德9).11.
- 作田莊一, 『国家原論』(建国大学後期第3学期講義用教科書), 1943(康德10), ガリ版刷り(등사판인쇄).
- 作田莊一, 『厚生政治汎論』(建国大学後期第3学期講義用教科書), 1943(康德10), ガリ版刷리(등사판인쇄).
- 作田莊一, 『満州建国の原理及び本義』, 新京: 満州富山房, 1944.
- 作田莊一, 『道の言葉』第1巻, 京都: 『道の言葉』刊行会, 1963.
- 作田莊一, 『道の言葉』第5巻, 京都: 『道の言葉』刊行会, 1966.
- 作田莊一, 『道の言葉』第6巻, 京都: 『道の言葉』刊行会, 1967.
- 作田莊一, 「満州建国の回顧」, 『あゝ満洲: 国づくり産業開発者の手記』, 東京: 農林出版, 1965.
- 西晋一郎, 『文教論』, 新京: 建国大学研究院, 1941(康德8).
- 西晋一郎, 「建国精神と王道」, 『建国大学研究期報』第3輯.
- 西晋一郎, 『人間即家国の説』, 東京: 明世堂書店, 1944.
- 『満州国官吏録: 薦任官以上』, 新京: 國務院總務庁人事処, 1938(康德5).7.15.
- 『満州国政府公報日誌』第1218号, 新京: 國務院總務廳秘書處, 1938(康德5).5.3.

〈저서〉

- 한석정, 『만주모던-60년대 한국 개발 체제의 기원』, 문학과 지성사, 2016.
- エドワード・W.サイード 著, 大橋洋一 訳, 『知識人とは何か』, 東京: 平凡社, 1995.
- 姜尚中・玄武岩, 『大日本・満州帝国の遺産』, 東京: 講談社, 2010.
- 中山優, 『東亜連盟への途』, 東京: 大民社出版部, 1940.
- 繩田二郎, 『西晋一郎先生の生涯と哲學』, 東京: 理想社, 1953.
- 前川恵司, 『帰郷-満州建国大学朝鮮人学徒 青春と戦争』, 東京: 三一書房, 2008.
- 宮沢恵理子, 『建国大学と民族協和』, 東京: 風間書房, 1997.
- 山田昌治, 『興亡の嵐-満州建国大学崩壊の手記』, 東京: かんき出版, 1980.
- 山室信一, 『キメラ-満州国の肖像』(増補版), 東京: 中央公論新社, 2004.
- Prasentit Duara, *Sovereignty and Authenticity: Manchukuo and the East Asian Modern*,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2004.

〈논문〉

강해수, 「최남선의 ‘만몽(滿蒙)’ 인식과 제국의 욕망」, 『역사비평』 통권76호, 2006.

강해수, 「‘도(道)의 제국’론의 射程－해방 후·전후 한일 양국의 ‘도(道)’ 담론과 이퇴계」, 『일본공간』 제11호, 2012.

강해수, 「제국일본의 ‘도(道義)국가’론과 ‘공공성－와쓰지 데쓰로(和辻哲郎)와 오다카 도모오(尾高朝雄)를 중심으로」, 『오늘의 동양사상』 제23호, 2012.

Abstract

Manchukuo as
'the State of Morality-Righteousness' and
Kenkoku University
-On the Discourse of Sakuda Soichi,
Nishi Sinichiro, Ch'oe Nam-Son

Hae-Soo Kang

This study analyses writings that discuss 'the existence and purpose' (the principle and 'the true meaning' according to Sakuda) of Manchukuo by Sakuda Soichi, the vice-chancellor of Manchuria Kenkoku University and the head of the research division. Along with this the paper discusses the discourse of 'morality-righteousness'(Ch: 道義) and 'the state of morality-righteousness'(Ch: 道義國家) expanded by Nishi Shinichiro, the emeritus professor of Kenkoku University and Ch'oe Nam-son who was invited as a 'policy professor'. I think through how 'morality-righteousness' and 'the state of morality-righteousness' discourse as part of Imperial Japan's 'imperial consciousness' gave rise to a national ideology of Manchukuo and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it. Lastly I offer to trace how Ch'oe Nam-son's 'morality-righteousness' and 'the state of morality-righteousness' discourse may be connected to Rhee Syngman's 'National founding ideology' as well as 'the movement to enhance righteousness' under the Park Chung-hee regime.

Key words

Manchukuo, Kenkoku University, 'the state of the morality-righteousness',
Sakuda Soichi, Nishi Shinichiro, Ch'oe Nam-Son